

韓國 大學生들의 重要한 價値

차 재 호 · 장 영 수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비교문화 연구(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의 일환으로 120명의 서울시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임의표집에게 40개 가치항목으로 된 질문지(Chinese Value Survey)를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중요도 평정을 얻어, 이의 평균치를 산출하고 이 평정치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대학생들은 대체로 성취와 친애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치들은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들은 13개 요인으로 요약되었는데 성취요인이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여 주된 가치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료는 중요한 가치도 가치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얻은 가치요인들이 응답자가 가치목록을 몇개 조각으로 분할해 반응하는 경향에 의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가리키는 증거를 제시하고 논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의 22개국(처음에는 동남아 10개국 조사로 시작)의 대학생들의 가치서열의 비교문화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 비교문화연구(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를 위해 우리나라 표본에서 수집된 결과를 보고한다. 개별적인 보고를 위해서 공동연구에 제출한 표본(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0명)의 크기보다 약간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알아보고자 한 것은 두가지였다. 첫째, 40개의 가치들(이것은 이 비교문화연구의 주설계자였던 홍콩 중문대학의 Michael Bond가 작성한 것으로 중국적 가치 내지 유교적 가치들을 망라한 것이다.) 각각에 대해 한국 대학생들이 그것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정하는지를 알아 보고, 그리고 둘째, 이런 중요도 평정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위의 가치들을 어떻게 묶게 되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전자는 가치들의 중요도에서의 서열을 알아보는 일이고, 후자는 가치들의 요인구조를 알아 보는 일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알아 보기 위한 조사는 많지만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대학생의 가치를 조사한 연구들(홍승직, 1963; 김태길, 1964, 1977; 이상주, 1966; 강상철, 1967;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69; 한덕웅, 1971, 1975; 송대현, 1973; 이의철·이정모, 1973; 김인자·황용연, 1974; 황용연, 1975; 홍대식·김성일, 1976; 장희순·김매자, 1977; 박준국 외, 1978; 김의정·이재양·임명순·심용철, 1980; 손정락, 1982; 손향숙·백선옥·강순화, 1982; 방순동, 1983; 송석우, 1984; 장동환·박우동·김교현, 1985; 오필호·이은순·백선옥, 1986) 가운데서도 목적이나 방법론이 다르다. 이들 연구들을 크게 A형과 B형으로 2분할 수 있는데(車, 1986), A형 연구는 가치관 연구로서는 보다 바람직한 것인데, 가치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위계(importance hierarchy) 또는 서열을 알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김태길, 1977; 김경동, 1982; 한덕웅, 1971, 1975; 이의철·이정모, 1973; 장희순·김매자, 1977). 가치항목간의 중요도

¹⁾ 현재 제일기획에 재직중

선호서열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연구에도 직접 응답자에게 항목간에 비교를 요구하는, 즉 중요도에 관한 상대적 판단을 요구하는 유형과 각 가치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척도(예: 찬반을 나타내는 5점 또는 7점 척도)에서 주관적 중요도 정도를 측정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가치항목 전부에 대해 서열을 짓게 하는 경우(김경동, 1982)와 일부에 대해서만 서열을 짓게 하는 경우(가장 중요한 가치, 둘째로 중요한 가치,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가치를 차례로 들게 하는 것과 같은 예: 김태길, 1977)로 나뉘어진다. 응답자에게 가치항목 간의 상대비교를 요구하지 않는 연구에서도 각 가치를 동일한 평가척도(찬반을 나타내는 5점 또는 7점 척도)로 주관적 중요도를 측정하게 되면, 중요도 측정치에 근거해서 연구자가 가치항목들 간의 서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응답자에게 직접 서열을 짓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뒤에서 설명할 B형 연구로 분류하기로 한다. 현존하는 A형 연구 조사들조차도 각각 다른 조(set)의 가치항목들을 다루고 있어,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흠이다.

B형 연구는 가치간의 선호서열보다는 가치의 내용을 수집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대체로 어떤 비교적 구체적인 대상이나 문제를 제시하고 응답자들로 하여금 여러 다른 해석이나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케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은?”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1)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 (2) 독립정신/강한 신념, (3) 종교/도의교육, (4) 원만한 대인관계, (5) 절제/규칙있는 생활, 그리고 (6) 기타의 6가지 선지 중에서 택일케 하는 형식이다(예: 홍승직, 1963). 여기서 선지 각각은 하나의 가치항목을 대표한다. 이런 조사에서 질문은 단지 가치항목을 유발하는 자극의 역할을 할 뿐으로 특정한 태도나 신념을 나타내는 “진술(statement)”의 형태를 취하는 태도조사에서의 질문과는 구별된다. 이런 진술이 특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면, 그리고 그런 진술에 찬반을 표시하게(5점척도나 7점척도 상에서의 절대판단을 요구하여)하면 그것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B형 가치연구로 구분한다. “택일”하는 반응도 일종의 서열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를 택일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의 가치 서열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A형과 B형의 구분은 단지 응답자가 서열을 직접 짓느냐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치항목의 전체 목록을 “하나의 문항으로서 제시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다. 가치항목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가치항목들간에 서열을 짓도록 요구하면 그 연구는 A형 연구가 되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B형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원하면 가치항목간의 서열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치들 간의 상호선호도를 결정하는 방법도 이론상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각 가치항목에 대한 상대적 평정자료를 얻는 것이다. 예컨대 등위법(rank-order method)이나 쌍비교법(paired-comparison method)(Guilford, 1954)에 의해 알아보는 것이고 이는 A형 연구에서 사용된다. 둘째는 각 가치에 대해 중요도를 절대판단법에 의해(예컨대 5점척도나 7점척도상의 평정을 통해) 얻은 평정치를 토대로 각 가치의 중요도 내지 선호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방법은 일정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좋아하는 것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정된 수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고 각각의 가치가 받은 선택 회수를 토대로 그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도(선호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마지막 방법은 등위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평정대상 가치에 대해 등위(rank order)를 매기지 않고 그중의 하나 또는 소수(가령 3개)에 대해서만 등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들 3가지 방법을 쓰는 연구에서는 개인 응답자의 자료 속에 가치항목 간의 서열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또하나의 방법인 네번째 방법에서는 합산자료(aggregate data)에서 서열정보를 얻어낸다. 개인 응답자는 몇개의 가치항목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인데(예: 홍승직, 1963), 이 반응에는 가치서열 정보가 그리 많이 들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느 가치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자의 찬택(endorsements)을 받았는가를 봄으로써 응답자 집단의 가치서열을 알아 볼 수 있다.

A형 연구의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김태길(1977)은 12개의 가치들을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3개를 순차적으로 선택케하고 제 1순위의 선택에 3점, 제 2순위 선택에 2점, 그리고 제 3순위 선택에 1점을 부여함으로써 각 가치의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이의철과 이정모(1973)는 그들의 연구에서 6개의

가치(인생판이라 불리는) 또는 8개 가치(생활신조라 불리는)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일하게 했다. 장희순과 김매자(1977)가 사용한 “Allport-Vernon-Lindzey의 가치관 연구”(Allport, Vernon, & Lindzey, 1951) 질문지의 제 2부도 부분적인 등위법을 사용하고 있다. 6개의 가치중 4개씩을 한 조로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에 4점을 주는 식으로 1에서 4점까지 선호도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4개 1조로 된 가치들의 조를 여러개 제시하고 한 가치의 선호도는 여러 조에서 그 특정한 가치가 받은 점수들의 화(sum)로 표시한다. 장과 김(1977)이 사용한 것 같은 “Allport-Vernon-Lindzey의 가치관 연구”의 질문지의 제 1부는 2개의 가치를 쌍으로 엮어 어느 한 쪽을 더 좋아 한다는 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데, 응답자는 단순히 “예” “아니오”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하는 답의 옆에 있는 괄호 속에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즉, 그 두 가치중 한 쪽의 선호를 나타내는 글을 적극적으로 찬성 하면 “예” 옆의 괄호 속에 3점을 기입하고 “아니오” 쪽에는 0점을 기입한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아니오”라고 생각하면 “아니오” 쪽에 3점을 기입하고 “예”에 0점을 기입한다. 만일 답이 그렇게 명확치 못하나 “예” 쪽으로 기울면 “예”에 2점을 기입하고 “아니오”에 1점을 기입한다. 만일 “아니오” 쪽으로 기울면, 반대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두 가치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쌍비교법(the pair-comparison method)보다는 일종의 제한적 등위법(the rank-order method)에 절대평가(absolute judgment)를 가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와는 달리 한덕웅(1971, 1975)의 연구는 각 가치(C. Morris의 13개 가치들)에 대해 절대평정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각 가치를 “대단히 좋다”에서 “대단히 싫다”에 걸치는 7점척도 상에 평정시키고 있다. 이 방법은 가치간의 선호순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등간척도를 만들 때에는 선호척도 상에서의 가치간의 거리(the scale distance)를 알아 내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치들 간의 선호순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들 중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겠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이들 연구를 개관한 글은 찾기 힘들

다. 국내의 가치관 연구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수집한 연구로는 황응연(1975)의 연구가 있는데, 연구들을 내용이나 응답자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개관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가치연구만이 아니라 각종 태도나 성격연구들도 포함시키고 있어 앞으로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인 개관이 필요하다.

아마도 B형 연구로 가장 이른 국내 연구는 홍승직(1963)의 조사와 김태길(1977)의 1964년 조사일 것이다. 그 뒤를 잇는 연구는 한덕웅의 1969년 조사(한, 1971)와 1970-71년 조사(한, 1975)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1973년에 행해진 서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의철과 이정도(1973)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이어 1976년에 행해진 역시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희순과 김매자(197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가치항목들 간의 상대적 평가 내지 선호(preference order)를 보는 이른바 “A형 가치연구”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극히 소수란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왜 A형 가치연구가 중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가치는 여러가지로 정의되나(황응연, 1975) 참조) 어떻게 가치를 정의하든 그 정의 속에 포함되어야 할 특징은 가치들간의 중요도의 상대적 차이이다. 우리가 價値(value 또는 더 정확히는 personal value)라는 개념을 態度(attitude)나 세계관(world view)이나 信念(beliefs)과 같은 다른 유사한 개념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가치 자체의 정의에서 보다는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우리는 X라는 태도를 Y라는 다른 태도와 그 강도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태도의 경우 응답자 집단간의 차이를 말하지만 태도들 간의 강도차를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남아존중(son preference)의 경우처럼 남아선호 태도와 여아선호태도 간의 강도를 비교하는 일이 있거나(예; 차재호 정범모 이성진, 1975), 엄격히 말해서 이 두 “태도”는 각각 남아가치(son value)와 여아가치(daughter value)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 것인지도 모른다. 가치라는 개념은 “의식화되어 있고 언어적으로 표현이 쉽게 되고, 비교적 서로 독립적이고 경합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에서의 목표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가

장 핵심적인 점은 “서로 독립적이고 경합적인… 목표들”이라는 부분이다. 가치라는 개념이 다른 유사한 심리학 개념과 구별되는 것은 이러한 경합적인 가치들 간의 관계 때문에 가치들 간의 중요도에 있어서의 서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물에서도 각종 욕구들 간의 강도의 비교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지만, 가치라는 개념은 추상적으로 정의된 한 개인의 인생에서의 추구목표들 간의 중요도 비교를 전제로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가치의 구조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重要度序列(the importance hierarch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치들 간의 중요도서열은 가치들 간의 선호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方 法

應答者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재학생 120명(1학년 60, 2학년 60)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에 포함된 학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로서 이들 개개 학교에서 40명씩(각 학년에서 남녀 각각 10명씩)을 뽑아 조사했다. 또한 각 대학교 내에서 5개 계열(사회대, 인문대, 사범대, 예술대, 자연대)에서 같은 수의 응답자를 뽑도록 했다. 단, 고려대 학교의 경우에는 예술계가 없어 대신 농과대학에서 해당하는 수의 응답자를 구했다. 이상과 같은 조건 내에서 특정 응답자의 선발은 임의표집을 따랐다.

質問紙

이 연구에 사용된질문지는 3면(2매)으로 된것으로 면의 크기는 19.3cm×27.0cm이었다. 첫면에는 소개하는 말과 지시문이 나와 있고, 다음에 2면에 걸쳐 40개의 가치 이름(예: “체면을 살리는 것”, “조심성”)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들 가치항목의 배열순서는 모든 질문지에 고정되어 있어 항목번호(표 1 참조)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들 가치항목(value categories)들은 Michael Bond가 비교문화적인 가치연구(The Chinese Value Survey 또는 CVS)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유교적인 가치들을 망라한 것이다(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이들 가치의 명칭은 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현 조사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름을 고쳤다(표 1 참조). 원래의

한문으로 된 명칭은 인쇄된 순서대로 다음과 같았다(The cultural connection, 1987): 孝, 勤勞, 容忍, 隨和, 謙虛, 忠於上司, 禮儀, 禮尚往來, 仁愛, 學識, 團結, 中庸之道, 修養, 尊卑有序, 正義感, 恩威并施, 不重競爭, 隱重, 廉潔, 愛國, 誠懇, 清高, 儉, 耐力, 耐心, 報恩與報仇, 文化優越感, 適應環境, 小心, 信用, 知恥, 有禮貌.

節次

조사는 제 2연구자가 담당하였다. 그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 잔디밭이나 벤치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만약 그 학생이 조사에 응할 뜻을 보이면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지시문이 포함된 질문지를 나누어 준 다음 먼저 지시문을 읽도록 했다. 질문지에 인쇄된 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중요한 정도를 “1”점으로부터 “9”점까지의 척도에 비추어 나타내 주십시오. “1”점은 “내게는 전혀 중요치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고, “9”점은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로 보십시오. 즉 점수가 높을 수록 그 항목이 당신게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1”에서 “9”까지 어느 한 숫자(1, 2, 3, 4, 5, 6, 7, 8, 또는 9중 어느 하나)를 골라 중요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각 항목마다 해주시되, 고른 숫자(점수)는 각 항목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각 항목(가치의 이름을 가리킴-필자 주)에 답을 할 때마다 “이 항목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고 답을 찾도록 해보시면 답을 찾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각 문항을 대할 때마다 위와 같은 물음을 속으로 던져 보시고 답을 찾아 보십시오.

지시문을 응답자가 다 읽고 나면 조사자는 “지시문에 관해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본 후 질문이 있을 경우 상세히 대답해 주었다. 그 다음에 이어 다음장에서 시작되는 가치의 각 항목을 평정케 하였다. 각 응답자가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대략 15분이었다. 조사는 1983년 3월 말에서 같은 해 4월 초 사이에 걸쳐 행해졌다. 질문지의 실시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하였다.

結果와 論議

자료는 전산처리하였다. SPSS(Nie, Hull, Jenkins, Steinbrenner, & Bent, 1975)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가치항목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어 중요도 평정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였다. 먼저 개개 가치들의 중요도를 비교하고 다음에 이어 가치들의 요인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겠다. 특히 후자의 경우, 요인으로 확인된 새로운 가치유목 별로 중요도를 비교해 볼 것이다.

價値類目들의 重要度 比較

40개 가치변인들에 대한 중요도 평정의 평균치와 표준편차가 표 1에 나와 있다. 이 표에서는 중요하다고 평정된 가치부터 차례로 가치들을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 질문지에서 다른 40개의 가치에 대해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점에서 9점까지에 걸친 9점척도에서의 중간점은 5점임에 유의하고 결과를 살펴야 한다.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들 5개(평정치 평균<7.50)는 “가까운 친구를 하나 두는 것”(평정치 평균=8.11), “자기계발이나 교양”(7.73), “성실성”(7.72), “신뢰성”(7.63), “타인에 대한 포용성 내지 개방성”(7.51)이었다. 그 다음으로 평정치가 7.0 이상인 것 9개를 들어 보면, “효도”(7.49), “끈기”(7.38), “남과의 유대”(7.35), “인화”(7.31), “인내”(7.23), “근면”(7.23), “학식”(7.20), “부패에 대한 투쟁”(7.08), 그리고 “정의”(7.01)가 포함되었다. 대학생들이 5.0점 미만의 평점을 준, 중요치 않은 가치들은 모두 7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치 않은 것부터 차례로 들어 보면 “경쟁이 없는 것”(3.18), “보수적 태도의 유지”(3.83), “인사치레”(3.87), “체면 지키기”(3.99), “각종 의식과 의례 지키는 것”(4.09), “상위자에 대한 충성”(4.31), 그리고 “위계질서 존중”(4.51)이었다.

대학생들의 이런 가치선호 패턴을 요약하면 서술시대의 우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친애, 자기수양, 성실, 성취(끈기, 인내), 효, 인화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한편 이들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지 않은 가치들을 요약하면 상하관계, 허례와 형식, 그리고 경쟁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다

는 것은 곧 전통적인 것에 대한 부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래서 보수적 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價値들의 要因分析

40개의 가치항목 각각에 대해 얻은 중요도 평정치들 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얻은 40×40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치 유목(항목)들이 중첩되는 지 여부를 보고 40개의 항목의 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전체 사례수는 n=120인데 이것은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좀 작은 표본크기이다. 먼저 반복주요인추출법(principal factoring with iteration)으로 eigen value=1.00이하의 요인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13개의 예비요인행렬을 얻었다. 이를 다시 varimax rotation법을 통해 회전된 13개의 요인의 要因行列(varimax rotated factor matrix)을 얻었다.

회전시킨 요인들의 전체변량 설명백분율을 보면 제 1요인이 33%, 제 2요인이 14%, 제 3요인이 10%, 제 4요인이 7%, 제 5요인이 6%, 제 6요인이 5%, 제 7요인이 역시 5%, 제 8요인이 4.5%, 제 9요인이 4%, 그리고 제 10, 11, 12, 및 13요인은 3.5%에서 2.6%까지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Varimax rotation을 하기 전의 요인행렬에서 제 1요인은 전체변량의 20%를, 제 2요인은 9%를, 제 3요인은 6.6%를, 제 4요인은 5%를, 그리고 제 5요인은 4.4%를 각각 설명하였다.(제 6요인 이하는 생략함). Varimax rotation을 하기 전과 한 후를 비교하면, rotation 결과로 제 1요인, 제 2요인, 그리고 제 3요인의 전체변량 설명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varimax rotation 요인행렬에서 첫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제 7요인까지의 요인들은 전체변량의 80%를 설명한다. 이런 결과는 13개의 요인(rotated factors)중 특히 첫 요인이 중요한 것이며, 좀더 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제 7요인까지 고려에 넣을만한 가치가 있고 나머지 요인들은 별로 변량 설명력이 없는 변인들임을 가리킨다.

13개의 요인들 각각의 성격을 알기 위해 각 요인과 負荷量(factor loading)이 가장 높은 변인(즉 가치항목)을 살펴보았다. 이런 방법으로 드러난 각 요인의 성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괄호 안의

<표 1> 각 가치항목별 중요도 평정치 평균 및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가치항목(괄호에 항목번호)	평균	표준편차
1	허물없이 가까운 친구를 하나 두는 것(#36)	8.1	1.80
2	자기 계발(교양) (#13)	7.7	1.41
3	성실성(#21)	7.7	1.37
4	신뢰성(#30)	7.6	1.40
5	타인에 대한 포용성(사상적 개방성) (#3)	7.5	1.58
6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도(#1)	7.5	1.62
7	끈기(#24)	7.4	1.55
8	남과의 유대(#11)	7.4	1.28
9	인화(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 (#4)	7.3	1.57
10	인내(참는 것) (#25)	7.2	1.47
11	근면(#2)	7.2	1.64
12	지식(교육) (#10)	7.2	1.65
13	부패에 대한 투쟁(#19)	7.1	1.59
14	정의감(#15)	7.0	1.69
15	적응성(#28)	6.9	1.53
16	여자의 정조(#37)	6.9	2.20
17	초연하고 순수한 몸 가짐을 하는 것(#22)	6.8	1.68
18	너그러운 마음씨(#9)	6.8	1.55
19	애국심(#20)	6.8	1.83
20	안정성 있는 성격(#18)	6.4	1.81
21	선의를 권위(#16)	6.4	1.99
22	예의범절(#32)	6.3	1.70
23	겸손(#5)	6.3	1.71
24	수치를 아는 것(#31)	6.2	1.78
25	근검절약(#23)	6.1	1.84
26	남이 내게 끼친 은혜와 해를 갚는 것(#26)	6.0	1.84
27	중용(가운데 길을 따르는 것) (#12)	6.0	1.97
28	생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33)	5.9	2.34
29	조심성(#29)	5.9	1.62
30	물욕을 초월하는 것(욕심이 없는 것) (#38)	5.7	2.00
31	전통의 존중(#39)	5.5	1.96
32	부(#40)	5.4	2.15
33	문화적 우월감(#27)	5.0	2.32
34	위계질서 존중(#14)	4.5	2.16
35	윗사람에의 충성(#6)	4.3	2.03
36	각종 의식(결혼 등)과 사회적 의례 지킴(#7)	4.1	1.84
37	체면을 살리는 것(#35)	4.0	1.92
38	인사치례(문안, 선물 등) (#8)	3.9	1.93
39	보수주의적 태도를 지니는 것(#34)	3.8	1.99
40	경쟁이 없는 것(#17)	3.2	1.91

<표 2> 각 가치요인을 대표하는 가치항목들

요인 1(성취가치) (33.0%)	— 끈기(.78), 인내(.71), 근검절약(.55), 성실성(.44), 근면(.22) 경쟁이 없는 것(-.11)
요인 2(전통가치) (14.0%)	— 보수주의적 태도(.71), 분수 지키는 것(.62), 체면 살리는 것(.55), 전통의 존중(.51), 자기계발 내지 교양(.34), 의식 의례 지키기(.34), 위계질서 존중(.33)/ 포용성 내지 사상적 개방성(-.23)
요인 3(인화가치) (10.0%)	— 인화(.78), 너그러운 마음씨(.60), 겸손(.56), 중용(.51), 포용성 내지 사상적 개방성(.45)
요인 4(성실가치) (7.0%)	— 성실성(.56), 근면(.55), 애국심(.52), 충성(.50), 효도(.39)
요인 5(편의주의가치) (6.0%)	— 적응성(.75), 문화적 우월감(.66), 은혜 값음과 양값음(.51)/ 부패에 대한 투쟁(-.17)
요인 6(체통 또는 염치가치) (5.0%)	— 수치를 아는 것(.55), 예의범절(.53), 근검절약(.48), 조심성(.44), 체면을 살리는 것(.42)
요인 7(예 또는 격식가치) (5.0%)	— 인사치레(.80), 의식 의례 지키기(.66)
요인 8(인격수양가치) (4.5%)	— 자기계발 내지 교양(.68), 지식 또는 교육(.65), 너그러운 마음씨(.36), 초연한 태도(.31), 위계질서 존중(.31)/ 경쟁이 없는 것(-.25)
요인 9(청빈가치) (4.0%)	— 물욕을 초월하는 것(.69), 정의감(.35)/ 부(-.59)
요인 10(정조가치) (3.5%)	— 여자의 정조(.66), 예의범절(.38), 효도(.37)
요인 11(정의가치)	— 선의의 권력(어진 권력의 행사)(.54), 정의감(.49), 부패에 대한 투쟁(.37), 신뢰성(.33)
요인 12(무경쟁 가치)	— 경쟁이 없는 것(.63), 부패에 대한 투쟁 내지 청렴(.50)/ 적응성(-.23)
요인 13(친애가치)	— 허물없이 가까운 친구를 하나 두는 것(.61)/ 윗사람에 대한 충성(-.45), 초연한 태도(-.32), 겸손(-.28)

수치는 요인 부하량임. 부적(negative) 부호를 지닌 부하는 수치가 작아도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입해 두었음):

표 1에 13개의 가치요인이 나와 있다. 이들 가치 각각의 해석은 요인번호 다음에 괄호 속에 표시해 놓았다. 각 요인의 전체변량 설명백분율도 요인명칭 뒤에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요인 11 이하는 생략했음). 이들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1) 성취, (2) 전통, (3) 인화, (4) 성실, (5) 편의주의, (6) 체통, (7) 예, (8) 인격수양, (9) 청빈, (10) 정조, (11) 정의, (12) 무경쟁, 그리고 (13) 친애이다. 이들 13개 중에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의 변량의 10% 이상을 설명하는 요인은 첫 3개(성취, 전통, 인화) 뿐이다. 이들 요인중 몇개는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

대, 인화(제 3요인)와 친애(제 13요인)의 두 가치는 모두 인간관계를 강조하는데 전자는 일종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인데 반해서 후자는 종국적 가치(terminal values)라고 볼 수 있다(Rokeach, 1973). 인화에서는 원만한 집단생활을 위해서 개인간에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가치이고 후자 가치는 친한 친구 자체가 좋다는 것이다. 이들 둘 중 정이란 가치에 가장 접근하는 것은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가치 중에서 요인 명칭이 일상 용어와 잘 부합되지 않은 생소한 것은 “무경쟁”(제 13요인)가치이다. 또 제 5요인인 편의주의가치는 부하된 변인들의 성격으로 보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요인의 하나이다.

효의 가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가치는 성실성 요인(제 4요인)과 정조요인(제 10요인)에만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충성의 가치도 제 4요인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요즘의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충과 효라는 가치가 독자적인 가치로서의 위치를 상실했다는 시사를 받는다. 그러나 가치의 중요도 평정 자료에 의하면,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효도가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해서 효도의 가치가 학생들 사이에 중요치 않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치가 다른 것들(가치항목들)과 비교적 독립적이면서 거의 모든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의 반응변산이 거의 없고 그래서 하나의 변인으로 등장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이 말은 어느 가치항목이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서 등장하지 않았다 해서 그 항목이 가치로서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필자가 다른 곳에서 주장한 것처럼(Cha, 1990), 요인분석에서 분리되는 요인은 사상의 어떤 불변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상황을 반영한다(“...the dimension [that is, a factor-the writer] is accidental and does not reflect any immanent aspect of the social world, as dimensions reflect immanent aspects of physical reality in physical sciences.”[p.13]). 여기서 시도한 것 같은 가치항목의 요인분석에서 나온 요인들은 기껏해야 어느 항목들이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높은 상관율을 보이는지를 가리켜 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요인의 해석(예: 공통요소의 수)은 오로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가변 요인설”은 요인분석에서 추출되는 요인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긴(평정한) 가치항목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중요도 평정치가 7.0 이상인 14개 항목 각각을 들고 그것이 속하는 요인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효도(해당요인 없음), 근면(성실요인), 포용성(인화요인), 인화(인화요인), 지식(인격수양요인), 남과의 유대(해당요인 없음), 자기계발/교양(인격수양요인), 정의감(정의요인), 부패에 대한 투쟁(무경쟁요인), 성실성(성실요인), 끈기(성취요인), 인내(성취요인), 신뢰성(해당요인 없음), 그리고 허물없이 가까운 친구를 두는 것(친애요인). 이런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가치들은 대개 요인으로 반영되어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효, 남과의 유대, 및 신뢰성의 세 가치는 요인으로 반영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 가치는 규범적인 것이어서, 즉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표 1 참조), 응답자간 중요도 평정상의 변산이 거의 없고 그래서 요인으로 등장못했을 뿐으로 그 자체로서 요인으로 볼 만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 사회 내에서 개인차가 없는 가치는 아무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도 이미 살아 있는 가치로서의 위치는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규범적인 가치와 “살아있는” 가치를 구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언어진 요인 별로 요인의 중요도를 위 자료를 토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인에 포함된 중요하다고 평가된 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인은 성취, 인화, 그리고 성실성이다. 이들 요인에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 2개씩 포함되어 있다. 이들 3개는 설명 변량이 가장 높은 4개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빠진 것은 전통요인이다. 전통존중은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지만 학생들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사를 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표 1에 나와 있다. 좀더 체계적으로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표 3> 각 가치요인의 추정 중요도

가치요인	중요도 평균	산출근거 항목수	항목들의 부하량 평균
친 애	8.11	1	.60
성 실	7.48	2	.56
인격수양	7.47	2	.67
인 화	7.31	1	.78
성 취	7.29	2	.74
편의주의	6.94	1	.75
정 조	6.90	1	.66
정 의	6.41	1	.54
염 치	6.27	2	.54
청 빈	5.73	1	.69
예	3.87	1	.80
전통존중	3.83	1	.70
무경쟁	3.18	1	.63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 보았다. 각 요인에 대해 부하량이 가장 높은 가치항목의 중요도 평가치로 그 요인의 중요도를 대표시키는 방법이다. 만일 한 가치요인에 부하가 높은 가치변인들의 부하량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 가치항목을 대표로 선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부하량을 지닌 가치항목들의 중요도 평정치를 평균하여 이 평균치를 해당 가치요인의 중요도 추정치로 제시했다. 그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

표 3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것은 요즘의 젊은 대학생에서는 성취와 천애가치가 우세하고 소위 전통적 가치에 속하는 염치, 청빈, 예, 무경쟁, 전통존중 등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질주의적인 문화속에서 인간 간의 평화적 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가치는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 대학생들이 외관상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전통에 대한 가치가 낮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이런 결과는 요즘 대학생들의 전통에 대한 관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의 그런 관심은 과거의 가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표 3의 결과는 또 앞에서 시도한 다른 방법에 의한 결론, 즉 가치요인들 중에서는 성취, 성실, 및 인화의 세가지가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다는 결론과 대체로 일치한다.

요인분석 결과를 떠나기 전에 기존의 가치의 요인분석 연구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Michael H. Bond가 중심이 되었던 22개국 비교문화연구(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에서는 본 연구가 사용한 바로 그 40개 가치들을 가지고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이들은 그에 따르면 통합(integration), 유교적 작업윤리(Confucian work ethics), 인정(human heartedness), 그리고 절제(moral discipline)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요인은 소위 생태적 요인(ecological factors)으로서 한 문화를 응답자로 하는 분석이며 개인을 응답자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연구와 문화를 단위로 하는 연구(ecological factor analysis)간에 요인구조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잠깐 두 연구에서 얻은 요인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들의 첫 요인인 통합은 정적 부하를 보인 것 속에 인화, 관용성, 무경쟁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제 3요인(인화요인)과 가깝다. 그러나 통합 요인은 효, 애국심, 여자에서의 정절과 부적 부하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둘째 요인인 유교적 작업 윤리는 위계질서, 근검, 끈기 등과 정적 부하를 지니므로 우리의 제 1요인인 성취요인과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유교 작업윤리 요인은 전통존중, 체면, 안정성(진득함) 등의 가치와는 부적인 부하를 보여 우리의 성취요인과는 약간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요인인 인정요인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씨, 인내, 예의범절 등 가치항목이 정적인 부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요인은 우리 연구의 어느 요인과도 잘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요인인 절제요인은 고결, 물욕의 초월 등 가치와 정적 부하를 보이는 것으로 청빈요인(제 9요인)과 가깝다. 이런 검토를 통해 분명한 것은 20개국 자료에서 나온 생태적 요인의 어느 것도 본 연구에서 분리된 요인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만영 등(1975)도 가치들의 요인분석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들은 10개의 사전에 정한 가치차원에 따라 문항을 작성했다. 각 차원 당 4개의 문항을 만들고 이렇게 나온 모두 40개의 문항을 개인을 단위로 요인분석했다(이만영·이성진·홍성렬·김정심, 1975). 사전에 특정개수의 가치차원을 상정했다는 면에서 이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확인적(confirmatory) 요인분석의 성격을 띤다. 그들은 10개의 요인을 얻었는데, 원래 상정했던대로 확인된 것은 5개 뿐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가치문항은 반대가 된다고 여겨지는 2개의 가치항목 중에서 택일하는 일종의 양극척도(bipolar scale)의 형태를 띤 것이어서 “가치지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항목을 하나씩 “절대판단”시킨 본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고 결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그들이 얻은 10요인 중에서 본 조사의 요인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닌 것은 성취-안락지향성이라는 차원인데 우리의 성취요인(제 1요인)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처럼 원래의 문항의 형식이나 문항에 포함된 가치항목의 내용이 본 연구와 아주 다를 때 추출된 요인들이 두 연구간에 유사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무리인 것이다. 두 연구간에 요인구조가 같게 나오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다른 근거가 있는데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受檢反應의 分析

이제까지 가치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는데, 이들 가치요인들이 그리 타당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위에 제시한 요인들이 항목(가치유목)의 내용에 따라 묶인 것이 아니라 질문지에 제시된 순서에 의해 생긴 요인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얻은 요인은 진정한 요인이 아니라 응답자들의 수검반응(test taking response)에서의 반응편파(response bias)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위의 요인을 대표하는 가치항목들의 표에서 부하량이 .40을 넘는 것들만의 요인번호를 질문지에 기입해 본 결과, 요인에 부하된 대표적 가치항목들이 제시순서상에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수치가 .40을 넘는 가치항목(변인)의 수는 요인 간에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부하량 수치가 .40을 넘는 가치항목들이 대개 질문지상에서 위치가 나란히 있거나 바로 이웃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항목번호를 질문지상의 항목번호 옆에 적어 보면, 얻은 요인의 대부분이 질문지 상에서 근처에 위치해 있는 항목들에 대해 같은 반응을 하는 경향에서 나왔음을 곧 알게 된다. 각 요인별로 대표적인 가치항목의 위치를 문항번호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x자는 같은 요인에 속하지 않는 문항의 자리를 나타낸다. (번호에 씌운 괄호는 뒤에 설명할 것으로 당장은 무시할 것이다.)

- 제 1요인 : (21) x 23 (24) (25)
- 제 2요인 : 33 34 35 x x x 39
- 제 3요인 : (3) (4) 5 x x x 9 x x 12
- 제 4요인 : (2) x x x 20 (21)
- 제 5요인 : 26 27 28
- 제 6요인 : 23 x x x x x 29 x 31 32 x x 35
- 제 7요인 : 7 8
- 제 8요인 : (10) x x (13)
- 제 9요인 : 38 x 40
- 제 10요인 : 37
- 제 11요인 : (15) 16
- 제 12요인 : 17 x (19)
- 제 13요인 : 6 (36)

위의 같은 결과로 왜 예컨대 요인 5 같은 것이 정의

하기 어려웠는지가 이해된다. 그것은 응답자들이 가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가치항목이 나타나는 질문지상의 위치에 따라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런 경향이 가장 작았던 요인은 요인 4와 요인 13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들은 대개 7개 숫자의 범위 안에서 부하항목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포범위가 특히 넓은 경우도 그것은 두개의 범위가 연결된 것으로(요인 4에서 처럼 #2에서 #6까지와 #20에서 #21까지의 두 범위가 연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결과는 질문지 안에서의 가치항목들 간의 단순한 공간적 근접(spatial proximity)이 가치항목들이 한 요인으로 묶이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앞서 든 이만영 등(1975)의 연구에서도 나란히 위치한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 경우 처음부터 한 요인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나란히 배열했기 때문에 몇몇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인 것이 문항내용의 유사성 때문인지 아니면 문항위치의 근접성 때문인지 구별할 길이 없다.

만일 空間 近接이 요인의 발생 원인이라면, 인접한 항목 중 처음 나오는 항목의 내용이 가치요인의 성격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요인에 부하된 것으로 밝혀진 가치항목들 중 가장 순서가 앞선 항목의 내용이 그 요인의 내용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 요인의 성질을 결정하는 항목은 대체로 응답자 집단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치들일 것이다. 즉, 특출한(salient) 가치항목은 응답자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다음에 오는 항목들에까지 일반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화라는 말은 그리 적절한 용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일반화 대신 “殘留”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의 항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잔류해서 뒤따르는 몇개의 항목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각 요인에 부하를 보이는 항목 중 가장 앞에 위치한 항목의 내용이 요인의 내용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런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료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먼저 요인 1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이 요인은 성취요인으로 해석된 것인데, 첫 항목은 21번 항목으로 “성실성”이다. 그런데 성실성은 성취와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두번째 항목은 23번인데 이것도 “근검절약”으로서 성취와는 잘 들어 맞지 않는다. 그 다음 항목이

24번으로 “근기”인데 이것은 성취와 잘 맞는 가치내용이다. 이것으로 보아 殘留效果로는 요인이 설명이 잘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하나의 예를 보기 위해 요인 2(전통가치)를 살펴 보면, 첫 항목(#33)이 자족(생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가치와 내용면에서 잘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 항목(#34)은 “보수주의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요인 해석과 잘 부합한다. 이제까지 본 두 예에서의 결과는 잔류효과설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요인 3(인화요인)에서는 항목의 위치가 제 3위에서 제 12위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첫 항목(#3)은 “타인에 대한 포용성(사상적 개방성)”으로 인화와는 꼭 들어 맞지 않는다. 다음 항목(#4)은 바로 “인화”이다. 그 다음 항목(#5)은 “겸손”으로 인화와 관계가 깊다. 제 5요인은 편의주의라는 까다로운 이름이 붙은 것인데 부하된 3항목이 연달아 있다. 첫번째 것(#26)은 “남이 내게 끼친 은혜나 해를 갚는 것”으로 편의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두번째 항목(#27)은 “문화적 우월감”으로 역시 거리가 있다. 세 번째 것(#28)이 “적응성”으로 편의주의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록 一般化(generalization)效果는 인정할 수 있되, 잔류효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두 효과의 차이는 전자에서는 활성화된 반응경향이 활성화 초점이 된 항목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그 효과가 확산된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그 초점에서 뒤로만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시도한 몇몇 요인에서의 탐색적 분석의 결과는 잔류효과 보다는 일반화효과와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시사를 던진다. 이 일반화의 초점이 되는 가치항목은 대개 부하량이 가장 높은 항목이라고 짐작되는데, 물론 필자가 요인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이런 항목의 내용에 크게 의존했을 것이다. 인접 항목을 활성화시켜 한 요인으로 묶는 초점 역할을 하는 항목, 즉 부하량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마도 응답자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것일 것이다. 그런 가치항목이 지각적으로 특출성을 지닐 것이다. 이런 예상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들(평정치<7.0)이 14개 있었는데 이들을 다시 적어보면 “가까운 친구를 하나 두는 것”(#36)(요인 13), “자기계발이나 교양”(#13)(요인 8), “성실성”4(#21)(요인 4), “신뢰성”(#30), “타인에 대한 포용성”(#3)(요인 3), “효도”(#1),

“근기”(#24)(요인 1), “남과의 유대”(#11), “인화”(#4)(요인 3), “인내”(#25)(요인 1), “근면”(#2)(요인 4), “학식”(#10)(요인 8), “부패에 대한 투쟁”(#19)(요인 12), 그리고 “정의감”(#15)(요인 11)이었다. 이들 항목번호를 순서대로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1, 2, 3, 4, 10, 11, 13, 15, 19, 21, 24, 25, 30, 36. 이들 번호를 위의 요인별 가치항목 번호표에 괄호를 씌워 표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가치가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표를 다시 괄호에 주목하면서 다시 보면, 어떤 요인들은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2, 5, 6, 7, 그리고 9가 그런 요인들이다. 따라서 요인이 어떤 중요도가 높은 가치항목에 의해 활성화된 반응경향이 이웃 항목에 확산(일반화)되어서 생겨났다는 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결과는 제 3의 가능성(잔류효과와 일반화효과에 이어)을 생각하게 한다. 요인을 생기게 한 활성화가 특출성을 지닌 어느 한 항목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웃한 항목들의 의미유사성에 의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들이 나란히 위치한 제한된 수의 항목들을 살펴 보면서 그들간의 공통성을 주목하고 여기서 발견된 공통성이 활성화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응답자들이 局部的인 자료(local data)를 놓고 머리 속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응답자들이 모든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항목 묶음(cluster) 또는 Gestalt에 대해 반응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가설은 얻은 요인이 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얻은 요인은 몇몇 항목들 사이의 공통성을 반영한다. 다만 그 요인은 항목의 재배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정된 타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인접한 몇개의 가치항목이 하나의 Gestalt로서 자극으로 작용해 요인을 창출했다는 가설이 맞는지 보기 위해 각 요인에 상당한 부하를 보인 항목들 중 부하량이 가장 높은 것 둘의 위치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13개 요인들 중 6개의 요인(요인 1에서 #25와 #26; 요인 2에서 #33과 #34; 요인 5에서 #26과 #28; 요인 6에서 #31과 #32; 요인 7에서 #7과 #8; 요인 11에서 #15와 #16)에서 그 두 항목이 나란히(즉 연이어) 위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2개의 요인(요인 9

에서는 #38과 #40; 요인 12에서는 #17과 #19)에서는 한칸 떨어져 나란히 있었고, 1개 요인(요인 8에서는 #10과 #13)에서는 두 칸 건너서 나란히 있었다. 가장 부하량이 높은 두 항목이 서로 두 칸 이상 떨어지지 않은 요인은 전체 13개 중 9개에 이른다. 실제로 부하량이 상당수준인 항목이 2개 이상인 요인은 12개 뿐이므로(요인 10은 1개 항목만이 의의있는 정도의 부하량을 지니고 있었다.) 전체 12개 중 9개라고 정정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들이 목록 조각 안에서 몇몇 항목에 대해 Gestalt적으로 반응했다는 증거로 받아 들여도 좋을 것이다.

이 가설, 즉 응답자들이 많은 수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평정을 해야 할 때 인지적 경제를 위해 그 목록을 몇개의 조각(chunks)으로 나누어 반응하되 그 조각 안에 포함된 항목 몇개가 공동으로 반응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은 그리 엉뚱한 생각은 아니다. 사람이 자극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分節化한다는 사실은 지각연구에서 잘 증명된 것이다. 이런 가설은 검증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측정의 여러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증하는 한가지 방법은 같은 가치목록은 한 응답자 집단에게는 고정된 순서로 인쇄된 질문지로,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매 응답자 마다 순서를 무선으로 재배열한 카드(한장에 한 가치항목씩이 적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케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의 각각의 요인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이 가설이 맞는다면, 전자 조건에서는 항목위치 효과가 요인구조에 영향을 주지만 후자 조건에서는 항목 위치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항목위치는 요인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두 자료에서 나오는 요인구조는 다르게 나올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상철(1967). 발전적인 가치관을 저해한 요인에 관한 예비연구.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김경동(1982). *한국사회 60년대 70년대*. 서울: 범문사.

김의정·이재양·임명순·심응철(1980). 현대사회와 가치의식. *중대논문집*, 24, 9-52.

김인자·황응연(1974).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김태길(1964).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유교사상과의 비교연구*. 서울: 일조각.

김태길(1977).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서울: 일조각.

박준국의(1978). *한국대학생의 의식구조연구*. 통일논총(부산대), 1(별책).

방순동(1983). 83학년도 신입생의 태도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경희대), 창간호, 99-138.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위원회(1969).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저자.

손정락(1982). Morris척도에 의한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전북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4, 203-210.

손향숙·백선옥·강순화(1982). 이화여대생의 가치관 조사. *학생생활연구*(이화여대), 18, 1-36.

송대현(1973).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학생생활연구*(전남대), 6, 1-43.

송석우(1984). *대학생의 가치관 조사연구*.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22(1), 41-54.

오필호·이은순·백선옥(1986). 이화여대생의 가치관 조사(II). *학생생활연구*, 22, 5-79.

이만영·이성진·홍성렬·김정심(1975). 가치관 차원의 탐색-가치관 척도 제작을 위한 연구. *행동과 학연구*, 8, 1-24.

이상주(1966). 가치관 형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이의철·이정모(1973). 197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서울대) 1, 1-66.

임인재(1964). 가치관 검사의 재표준화 연구. *학생연구*(서울대), 3(1), 30-37.

장동환·박우동·김교현(1985).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학생지도연구*(성균관대), 6, 3-24.

장희순·김매자(1977). 서울대학교 간호계와 비간호계 여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의학*, 32, 311-318.

차재호(1986). 가치관의 변화. 강신포 외,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서울: 범문사.

차재호·정범모·이성진(1975). *한국의 남아존중사상*.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한덕웅(1971).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한 연구 : 인격형 모델에 따른 연구. *학생지도연구*, 1, 26-39.
- 한덕웅(1975).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II) : 인격형 모델에 따른 연구. *학생지도연구*, 2, 117-128.
- 홍대식·김성일(1976). 한국 학생의 국가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홍승직(1963).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아세아 연구*(고대), 11, 55-97.
- 홍승직(1967). 해방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아세아 연구*(고려대), 10(2), 301-317.
- 황응연(1975).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 익문사.
- Allport, G.W., Vernon, P.E., and Lindzey, G. (1951). *A study of values*. Boston : Houghton Mifflin.
- Cha, J.H.(1990).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uly 9-13, 1990, Seoul, Korea.
-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1987). Chinese values and the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s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143-164.
- Nie, N.T., Hull, S.N., Jenkins, J.G., Steinbrenner, K., and Bent, D.H. (197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 The Free Press.

Important Valu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s Revealed in Chinese Value Survey

Jae-Ho Cha and Yong-Soo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part of a cross-cultural survey of value(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a 40 value -questionnaire(The Chinese Valu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n incidental sample of 120 college students in the Seoul area, and the students were asked to rate each value for its subjective importance on a 9-point scale. 13 value factors were identified, of which achievement turned out to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accounting for 33% of the total variances. The per cent variance accounted for by other factors ranged from 12% to 2%. The mean importance ratings showed that the Korean students valued achievement,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endability most while they downgraded the importance of such traditional values as tradition, politesse, chastity in woman, justice, financial honesty, and scrupulousness. Some values judged very important did not appear as value factors, presumably because there is little variance in the response of the subjects. Evidence for a test-taking response tendency was presented, which might have partly biased the obtained value factors-a tendency on the part of the respondents to react to the chunks of the values(sets of proximately located value items) on the questionnaire rather than to each value item separately.